

레미콘산업동향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조사과〉

1. 1997년 1/4분기 건설경제동향

1) 개황

한국은행이 발표한 97년 1/4분기 국내총생산(실질 GDP)에 의하면, 1997년 1/4분기중 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의 신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설비 및 건설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5.4%증가에 머무는 부진을 보였다. 생산면에서는 제조업이 경공업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중화학공업의 신장세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은 주택, 공장등 건물건설이 감소하였고 철도시설, 간척사업등 토목건설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전년대비 1.9%감소하였다. 수요면에서 민간소비는 경기침체와 교역악화 등에 따른 소득증가세 둔화로 완만

한 성장에 그쳤으며 고정투자는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가 각각 2.5%, 2.0% 감소하였다.

건설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민간건설은 단독주택등 주거용 건물건설과 공장, 사무실등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모두 줄어들었고 토목건설도 철도와 간척사업, 용수개발등의 농림수산부문에서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3.3% 감소하였다.

또한 공공건설은 공공관서를 포함한 건물건설이 크게 증가한 반면 지하철 건설이 감소한데다 도시토목 및 상하수도 건설도 부진하여 0.8%증가에 머물렀다.

건설투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공장 및 상업용등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감소하였고 주거용 건물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도 항만, 전력

[표 1] 건설업의 성장률 및 건설투자의 증가율 추이

(단위 : %)

구분	기간	95년	96년 ^p				95년 ^p	
		1/4	1/4	2/4	3/4	4/4	년간	1/4
건설업		7.3	10.4	6.7	7.5	3.7	6.7	-1.9
민간 건설	합계	7.3	8.5	2.6	2.9	2.6	3.9	-3.3
	주거용	-0.5	6.9	-1.7	3.3	-6.4	0.4	-8.1
	비주거용	14.1	3.8	-5.1	-9.5	1.4	-2.4	-3.3
	토목	19.5	25.6	21.2	17.2	15.2	18.7	7.6
정부건설		5.4	27.5	18.4	19.6	4.3	14.3	0.8
건설투자		7.1	11.2	5.6	7.1	2.8	6.3	-2.5
건물건설투자		5.5	6.4	-1.3	-0.4	-3.7	0.2	-5.0
기타건설투자		11.4	23.8	17.1	19.4	10.0	16.1	3.4

자료 : 한국은행 '1997년도 1/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참조

[표 2] 부문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

구분	95. 12	96. 11	96. 12	97. 1	97. 2	97. 3	97. 4	전월대비
계	152,313	111,045	109,637	107,513	96,618	86,847	80,155	-7.7
민간부문	91,450	71,238	69,434	65,318	58,625	54,367	50,357	-7.4
공공부문	60,863	39,807	40,203	42,195	37,993	32,480	29,798	-8.3
(준공후)	17,919	12,674	12,304	11,545	10,861	10,024	9,272	-7.5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시설등에서는 호조를 보였으나 철도시설 투자와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여 전체적으로 2.5% 감소하였다.

2) 97년 건설업경기현황 및 전망

건설협회「97년 건설업 경기현황 및 하반기전망」에 따르면 97년 상반기 국내건설 수주액은 공공공사 조기발주정책에 따른 SOC 시설을 비롯한 공공토목공사의 호조에 힘입

어 전년동기 301,481억원대비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공 토목공사는 국도 확·포장공사 및 철도, 교량, 항만등 SOC시설 확충과 오·폐수처리 시설등 환경관련 시설등도 활발하게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공서 및 교육시설 등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건설은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되어 설비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SOC민자유

[표 3] 시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

구분	'95. 12	'96. 11	'96. 12	'97. 1	'97. 2	'97. 3	'97. 4	전월대비
계	152,313	111,045	109,637	107,513	96,618	86,847	80,155	-7.7
서울	311	1,421	1,408	732	413	362	373	3.0
부산	15,733	14,359	15,031	14,078	12,710	10,113	9,659	-4.5
대구	4,940	3,770	3,898	3,841	3,908	3,404	3,079	-9.5
인천	8,301	5,041	4,911	3,202	2,055	733	841	14.7
광주	7,858	4,924	4,436	4,793	4,135	3,528	3,890	10.3
대전	4,922	468	265	93	47	528	1,220	131.1
경기	26,381	16,783	17,576	14,834	12,004	10,574	10,832	2.4
강원	13,630	10,177	9,227	8,708	7,691	7,396	6,687	-9.6
충북	10,860	4,478	4,066	3,745	3,825	3,603	3,415	-5.2
충남	12,390	13,351	12,324	15,619	14,309	13,524	7,718	-42.9
전북	7,471	6,341	6,478	5,838	5,825	5,752	6,777	17.8
전남	8,838	5,755	5,217	5,338	4,958	3,729	3,134	-16.0
경북	8,511	9,247	10,169	9,540	9,855	9,153	8,365	-8.6
경남	20,442	13,742	13,556	16,169	13,951	13,540	13,325	-1.6
제주	1,725	1,188	1,075	983	932	908	840	-7.5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치 사업의 활발한 추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준건축비 인상 자율화지역 확대,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주택임대사업 지원 등의 영향으로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97. 4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80,155호로서, 지역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되어 주택수요가 주춤한 수도권지역 및 대전. 광주 등 대도시지역에서는 미분양주택이 다소 증가한 반면,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감소하는 등 미분양주택의 적체현상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인 주택경기의 침체로 주택업체들의 기업체질이 최악의 상황으로 주택경기가 침체에서 완전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 공공부문에 비해 위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 건설경기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공부문이 공종별로 토목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며 건설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은 전반적인 경제불황의 지속으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공업용허가면적의 부진이 두드러지

고 주거용 허가면적도 부진을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와 비슷하거나 2-3%가량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97년 하반기 국내건설 수주액은 상반기 조기발주에 따른 하반기 공사발주 물량의 소진으로 전년 436,404억원대비 10%내외에 증가가 예상되어 상반기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건축허가면적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폭은 5%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 97년 1/4분기 레미콘산업동향 및 하반기 전망

1) 97년 1/4분기 레미수급동향

97년 1/4분기 레미콘산업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속에서도 충청지역 및 부산·경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10%대를 상회하는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공공공사 조기발주 정책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비롯한 공공토목공사호조와 중·

[표 4] 전국 레미콘생산업체 현황

(1997년 3월31일 기준)

	업 체 수	공 장 수	생산능력(B/P)		믹서트럭(R/T) 보유대수(대)	시멘트사이로 (TON)
			기 수	천m ³ /년		
서울·경인	105	154	244	88,500	7,414	158,950
강 원	64	72	77	19,580	1,152	33,490
충 북	42	43	51	13,900	895	22,370
대전·충남	66	82	106	32,248	1,953	69,590
전 북	43	48	62	19,320	1,068	35,930
광주·전남	59	74	90	27,660	1,958	47,920
대구·경북	87	97	126	39,228	2,471	68,710
부산·경남	93	105	151	46,698	3,201	99,865
제 주	13	13	17	5,040	275	8,980
합 계	534	688	924	292,174	20,387	545,805

주) 1. 전국 업체수는 지역 중복을 피한 수치임.
2. 연간 생산능력은 년 250일, 1일 8시간 가동 기준임.
3. 시멘트 사이로는 각 레미콘공장 보유 시멘트사이로의 합계임.

소도시의 미분양 아파트 감소추세에 따른 주택건설경기의 개선에 따른 것으로 1/4분기중 총 534개업체 688개공장에서 22,969,501m³를 생산하여 전년 20,152,407m³보다 13.9% 증가하였다.

이중 강원지역이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레미콘출하가 급격하게 증가한 영향으로 민·관수를 포함하여 전년 490,060m³에 비해 53.3%가 증가한 766,207m³를 생산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레미콘 판매 증가율을 기록

(표 5) 97년 1/4분기 지역별 레미콘 출하실적

(단위 : m³, %)

지 역	수 요 별	1997	1996	증감율
서울·경인	민 수	7,512,037	6,683,159	12.4
	관 수	809,028	656,264	23.3
	계	8,321,065	7,339,423	13.4
강 원	민 수	648,337	435,917	48.8
	관 수	117,870	54,143	117.7
	계	766,207	490,060	53.3
충 북	민 수	631,561	641,561	-1.6
	관 수	81,845	92,418	-11.4
	계	713,406	733,979	-2.8
대전·충남	민 수	1,894,887	1,487,972	27.3
	관 수	320,734	169,742	88.9
	계	2,215,621	1,657,714	33.7
전 북	민 수	764,553	690,132	10.8
	관 수	350,008	244,769	43.0
	계	1,114,561	934,901	19.2
광주·전남	민 수	1,794,205	1,686,045	6.4
	관 수	517,657	397,557	30.2
	계	2,311,862	2,083,602	10.9
대구·경북	민 수	2,538,224	2,050,633	23.8
	관 수	449,905	519,186	-13.3
	계	2,988,129	2,569,819	16.3
부산·경남	민 수	3,513,122	3,282,261	7.0
	관 수	686,950	815,613	15.8
	계	4,200,072	4,097,874	2.5
제 주	민 수	236,158	176,012	34.1
	관 수	102,420	69,023	48.4
	계	338,578	245,035	38.2
합 계	민 수	19,533,084	17,133,692	14.0
	관 수	3,436,417	3,018,715	13.8
	계	22,969,501	20,152,407	13.9

하였다. 그 다음으로 제주 지역 38.2%(338,578m³), 대전·충남지역이 33.7%(2,215,621m³) 증가 하였으며 서울·경인지역 13.4%(8,321,065m³)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부산·경남지역은 전년 대비 2.5% 증가에 머물렀으며 충북지역은 2.8%의 생산량감소를 나타내는 부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참조]

수요별로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를 조기발주 하였고 일부지역에서의 수해복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교육시설, 관공서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관수는 전년 같은기간의 3,018,715m³ 대비 13.8%증가한 3,436,417m³를 출하하였으며 또한 지역적으로는 주택수요가 주춤한 수도권지역 및 대전·광주 등 대도시지역을 제외한 춘천, 진주, 천안등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미분양 감소폭이 점차 둔화되어 아파트등 주택건설이 증가하면서 민수는 전년 17,133,692m³ 대비 14.0%증가한 19,566,084m³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지역은 농로 확장보수와 관계수로의 정비 그리고 강원북부지역의 수해복구 및 방지시설의 개·보수와 도로확장등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레미콘 출하가 급증하여 관수출하가 전년 54,143m³ 대비 117.7%증가하는 호조를 보였으며 민수는 춘천을 중심으로 한 중·소도시에서 아파트 건설을 비롯한 주택건설이 호조를 보여 전년 대비 48.8%증가한 648,337m³를 출하하였다. 한편 최근 몇년간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레미콘 생산이 정체 혹은 감소하였던 제주지역은 관급공사의 조기발주 및 제주도개발특별법·발효의 영향으로 관광위락시설 등의 상업용 건물과 주택건설등에서 호조를 보여 관수는 전년 대비 48.4%, 민수는 34.1%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대전·충남지역은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대전 관저지구 아파트단지 및 천안의 임대아파트, 관공서 신축등을 중심으로 레미콘수요가 급증하여 전년 1,657,714m³ 대비 33.7%증가한 2,215,621m³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북지

[표 6] '97년 상반기 및 하반기 레미콘 출하전망

(단위 : 천m³, %)

구 분	상반기 ^p	전년대비	하반기 ^e	전년대비	합 계 ^e	전년대비
		증 감 률		증 감 률		증 감 률
서울·경인	22,592	5.5	27,204	4.5	49,796	4.9
강 원	2,744	10.1	3,955	4.6	6,693	6.7
충 북	2,397	-8.4	3,327	0.6	5,724	1.7
대전·충남	5,747	8.7	7,315	3.3	13,062	5.6
전 북	2,903	9.2	3,772	9.2	6,675	9.2
광주·전남	5,400	7.6	6,340	8.2	11,740	7.9
대구·경북	7,389	4.7	9,031	3.3	16,420	4.0
부산·경남	9,754	4.7	10,998	4.9	20,752	4.9
제 주	813	20.1	994	13.8	1,807	16.6
전 국 총 계	59,739	5.7	72,936	5.3	132,671	5.5

주) p추정치, e는 예상치임.

역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건설수요가 급감하여 관수는 전년대비 11.4%감소한 81,845 m³, 민수는 1.6%감소한 631,561m³를 출하하는데 그쳤다.

2) 1997년 하반기 수급 전망

1/4분기중 레미콘산업은 출하에 호조를 보였으나 성수기인 4월중 일부지역에서 시멘트 재고가 급감하면서 레미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5월에는 예전과 달리 잦은 우천으로 인한 현장수요의 감소등 레미콘수급의 부정적인 영향과 레미콘 출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장마가 예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분기중 레미콘출하의 증가폭이 전분기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5.7%증가한 59,739천m³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상반기중 발주가 시작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비롯한 공공토목공사와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레미콘이 출하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규모의 레미콘출하를 유발할만한 특수 수요가 불투명하여 전년동기대비 5.3%증가한 72,936천m³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원자재수급동향

1) 시멘트수급동향

지난해와 같이 상반기중 일시 구독난이 예상되었던 시멘트는 전년 같은 기간에 가동이 중단되었던 고려 장성공장의 정상가동과 기존공장의 시설확충 및 가동율제고로 상반기중 전년대비 6.4%증가한 28,210천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를 우선 충당하기 위해 수출 물량을 해외시장 관리를 위한 최소량인 373천톤(전년대비 20.8% 감소)를 수출할 예정이다.

더구나 시멘트의 최대 수요처인 레미콘이 4-5월 성수기에 기후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재고는 표 6에서 보는것과 같이 5월말 현재 1,090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0%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 수급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반기중 수요는 수출을 포함 32,417천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생산의 경우 상반기의 양호한 수급 사정으로 전년대비 1.5%감소한 30,290천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성수기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위하여 2,095천톤(전년대비 2.7%감소)을 수입할 계획이다. 내수의 경우 사회 간접자본 투자 및

[표 6] 시멘트 수급실적 및 전망

(단위 : 천톤, %)

구 분		상반기 실적			하반기 전망	합 계
		1-5월 실적	6월 전망	계		
공 급	생산	22,810(7.4)	5,400(2.5)	28,210(6.4)	30,290(-1.5)	58,500(2.2)
	수입	1,055(0.7)	350(48.9)	1,405(10.0)	2,095(-7.1)	3,500(1.1)
	계	23,865	5,750	29,615	32,385	62,000
수 요	내수	23,210(5.0)	5,900(14.5)	29,110(6.8)	31,890(-2.7)	61,000(1.6)
	수출	334(-21.4)	39(-15.2)	373(-20.8)	527(68.4)	900(14.8)
	계	23,544	5,939	29,483	32,417	61,900
재 고		1,090(96.0)	901(5.4)		869(6.4)	

자료 : 한국양회공업협회

정부 시설공사의 조기발주에 따라 수요가 상반기에 편중되었고 96년 하반기 내수가 11% 증가했던데 따른 상대적인 둔화 현상으로 전년 대비 2.7%감소한 31,890천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성수기인 9-10월중 일시에 시멘트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과 생산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전년과 같은 심각한 시멘트 구독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상반기 골재수급동향 및 하반기 전망

골재협회에 의하면 골재공급은 허가가 계획량 대비 62%가 완료되어 순조로운 채취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허가 물량도 공급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원활한 수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수도권지역은 모래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모래의 허가가 4월말까지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수급불안요인이 내재하고 있었으나 일부 물량이 허가되었고 양평, 여주, 가평등 동부지역의 하천골재도 채취되고 있어 상반기 골재수급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경북, 경남, 제주 지역은 전년도 이월량 및 97년 허가량이 계속 채취되고 있고 수요 부진으로 야적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수도권 및 전남지역의 바다모래와 육상모래 등의 허가량에 대한 채취가 8월말경에 완료되고 수도권 동부지역의 채취량도 점차 소진되어 수도권, 전남, 부산등 일

[표 7] 골재채취허가 및 수요실적

(단위 : 천m³)

구 분	공 급				수 요	
	97년 허가 공급계획량	공 급 량			97년 수요계획량	수요량
		계	허가	비허가		
97년 상반기	197,325	134,671	122,440	12,231	221,787	113,388

주 : 수요량은 4월말까지의 레미콘출하량을 기준으로 함.(추정량)
한국골재협회 자료

부지역은 성수기에 수요가 집중될 경우 모래공급 부족현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자갈의 경우 석산자갈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물량이 많아 하반기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